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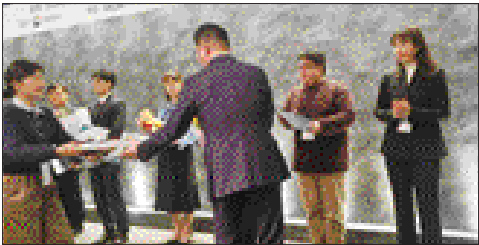
정읍시, 전북시군공무원노조 '노사한마음대회'

정읍시가 제14회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연맹 노사한마음대회를 개최하며 공무원 노사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27일 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시와 시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대원)이 공동 주관하고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한창훈)이 주최했다. 행사에는 전북연맹 소속 8개 시·군(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진안, 임실, 고창)의 (부)단체장과 각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 600여명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치러졌다.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한마음 경기, 화합한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기념식에서 진행된 희망 퍼포먼스는 노사 간 화합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2024년 지방세 발전포럼 '우수상' 수상

김제시는 이달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열린 '2024년 지방세 발전포럼' 시·도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지방세 발전포럼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안정화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시·도 대표 연구과제 발표, 세미나 등을 통해 2025년 지방세 제도 및 정보화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지방세 관련 행사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전국 17개 시·도가 참가한 이번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전북 대표로 참가한 김제시 최동광 주무관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세 과세방안'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관점으로 세원 발굴 방안을 제시, 우수상인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제=곽도태기자



남원 운봉읍, '행복 나눔 한마당' 개최

남원시 운봉읍 행정복지센터(읍장 이은주)는 지리산노인복지센터(센터장 김해진, 이하 센터)가 주관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환으로 '행복 나눔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운봉읍에 거주하는 80여명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어르신들이 초청되었으며, 다양한 공연 관람 및 문화활동 체험으로 인지활동을 자극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등을 통해 노년층의 정신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마련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주천면, 어르신 행복한 생일 밥상 사업 진행

남원시 주천면 행정복지센터는 초췌한 1일 1가구 복지행정의 일환으로 홀로 어르신 행복한 생일 밥상 사업을 진행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해 70세 이상 홀로 어르신의 생신날에 생일 케이크와 생일상 차림 음식들을 가지고 어르신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생일 축하와 안부 확인 및 복지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행사에는 면장과 지사협의회 위원, 마을 이장, 면 복지팀 직원들이 외로울 수 있는 어르신의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고립감 해소하는데 함께 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나눔의 가치 실천은 농협의 사명”

전주농협, 이웃사랑 김장나눔 축제 성황리

전주농협(조합은 임인규)은 지난 25~26일 양일간에 걸쳐 전마동 농기계수리센터에서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이웃사랑 김장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주농협 임직원 및 부녀회장 84명이 참여해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이번 축제에서는 2,000포기 김치를 직접 담가 지역내 마을경로당, 시설단체, 혼자 사시는 어르신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한 부녀회장 중 한분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었고,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인규 조합장은 “지역 사회와 함께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은 농협의 중요한 사명”이라며, “이번 김장나눔을 통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가 전



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농협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상생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기안전공사 김장나눔 10년차... 올해도 3.5t 나눴다

2015년 배추가격 폭등으로 시작된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의 김장나눔 행사가 올해로 10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가 행사를 주관해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배추 3.5t을 나눴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6일 전북 완주군 본사에서 전북지역 이전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NPS) △한국국토정보공사(KIX)와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이 행사는 2015년 당시 천정부지로 오르는 배추값 때문에 겨울철 김장을 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 시작됐다. 전기안전공사와 국민연금공단, 국토정보공사가 매년 번갈아 가면서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을 포함해 3개 기관 임직원 약 6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3.5t에 달하는 김치를 담그기 위해 지역 내 자립준비청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700가구에 순차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올해도 배추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번 김장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전기안전공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무주군농어촌종합지원센터, 활동가 양성·문화활동 성과 도출

무주군농어촌종합지원센터(최일섭 센터장)에서는 최근 활동가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활동가들을 배출하고, 이들이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체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또한, 노후된 마을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 프로젝트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무주군 주최, 무주군농어촌종합지원센터 주관하에 진행되었으며, 주민 참여와 소통을 중심으로 마을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일섭 센터장은 이번 사업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활동가 양성교육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넘어 지역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번 활동을 통해 배출된 활동가들이 마을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특히, 경로당 리모델링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결과물이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

그 말했다.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은 “이번 활동을 통해 마을이 더 활기차고 따뜻한 공동체로 느껴졌다. 특히 활동가들과 함께한 시간이 정말 즐거웠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라며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다.

한편, 리모델링된 마을경로당은 주민들이 함께 모여 소통



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새롭게 단장된 공간은 다양한 주민 모임과 프로그램의 중심지가 될 전망이다.

이번 활동은 주민과 활동가가 함께 협력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새마을금고, MG 무지개봉사단 따뜻함 나눠

진안새마을금고 MG 무지개봉사단(단장 서경애)의 나누는 봉사가 추운 겨울 온기를 전하고 있다.

MG 무지개봉사단은 진안새마을금고 임은미 이사장을 비롯해 직원 등 25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해 매년 진안의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봉사단은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음식 나눔 잔치로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날 행사 및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에 이어 지난 23일 개최된 전국 장애인 파크골프 대회장에서도 커피와 간식 나눔봉사를 진행했다.

또한 꾸준히 청정진안 실현을 위해 시가지 환경정화 활동도 추진하는 등 자원봉사에 진심을 다하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지역 기관에서 관내 소외 계층은 물론 군 개회 행사에도 관심을 갖고 사랑을 나눠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제시, 본격 겨울나기 환경 정화 활동 실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기 전, 길거리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자 민·관이 하나되어 환경정화 활동을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국토대청결 운동은 겨울 바람에 날린 쓰레기가 곳곳에 방치돼 있어 미관에 좋지 않았던 골목길, 유동 인구가 많은 중심 상가, 공원을 중심으로 청소 구역에 지정해 수거했다.

또한 내 집, 내 가게 앞, 내가 청소하기(내내내) 캠페인 홍보를 병행 추진해 시민들이 직접 청결한 거리 환경 조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낙엽도 스스로 수거하여 배수로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자원과 관계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김제시 환경 조성을 위해 합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김제=곽도태 기자



순창군자봉센터,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 펼쳐

순창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기자)는 27일 행복나눔조리실에서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기 위해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순창군 여성단체협의회, 청년회의소와 센터등록 자원봉사단체, 순창군 예비군지역대원과 순창군 여성예비군소대원 등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2,400kg의 절임 배추, 620kg의 김치 양념으로 김치를 정성껏 담갔다.

이율러, 완성된 김치는 관내 취약계층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 300여 세대에 전달되어 훈훈한 온기를 전했다.

이기자 순창군자원봉사센터장은 “소외된 이웃에게 순창군 자원봉사자들이 정성껏 담긴 김치로 모두가 따뜻한 겨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해상풍력, 부안군 인재육성장학금 500만원 기탁

한국해상풍력(대표 김석무)은 지난 26일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에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한국해상풍력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 실증 및 시범단지 건설과 운영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로, 부안에 본사를 이전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60MW 규모)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또 한국해상풍력은 취약계층을 위한 백미 나눔 및 다양한 생활 필수품을 기증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농협 남원시지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농산물 전달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는 27일, 남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나찬도)를 방문해 남원 농산물이 '춘향애인' 참미 350kg을 전달하며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에는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남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나찬도)임직원 20여명이 참석, 지난 9월 백미 400kg 지원에 이어 올해 2번째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취약계층을 선정하여 35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대강면, 2024 노인일자리 마무리

남원시 대강면은 27일, 2024 노인일자리를 마무리하고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일자리 사업은 1월부터 12월 중 10개월 동안 월 10회, 하루 3시간씩(월 290,000원) 진행되었으며 주로 잡초 뽑기, 화단 가꾸기, 분리수거 등 환경 정비 업무를 추진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고생하신 어르신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겨울철 집에서 시간을 보내실 어르신들께 “겨울철 맞이 안전 예방 수칙 안내”도 함께 진행하였으며, 한파 예방 조끼를 배부하면서, 언제든 어려움이 있으면 면사무소 복지팀에 찾아오시거나 전화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